

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록

위 원 회 차 수	2026년 제1차	비 고
일 시	2026. 4. 22.(수) 14:00	
장 소	군산시청 4층 상황실	
출석위원	9명	
회의진행 순 서	개회 - 부위원장 인사 - 안건처리 - 폐회	
상정안건	1. 2025년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(안) 심의·의결 2. 2025년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(안) 심의·의결	
위원 발언요지		

[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(안) 심의·의결]

○ 박서현 위원

- 건강 부문 이행율이 높지만 실제로 취약인구가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.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취약 인구 실태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되었으니 기후환경과와 보건소와의 협업이 필요함
- 기후위기 교육과 더불어 폭염이나 온열질환 같은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
- 야외 노동자를 위한 버스 등의 이동 쉼터 도입이 필요

○ 김성천 위원

-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연간 900명 정도 증가를 하는 상황이어서 건강관리 지표를 추가하는 정책 수립 필요

○ 박영신 위원

- 통칭 MRV(Measurement, Reporting, Verification)에서 용역사가 V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시에서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는 것인지?

(군산시 기후환경과)

- 용역사에서는 문제점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

○ 강영신 위원

-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리포팅을 지속적으로 위원 및 사업부서들과 공유해야 함

(군산시 기후환경과)

-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업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이행과제 점수 및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수렴한 결과로 보고서 작성함

○ 백운초 위원

- 오늘 심의는 본 위원회에서 2025년에 승인한 계획에 대한 점검이고 올해 내용이 들어가는 3차 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음
- 오늘 점검은 평가라기 보다는 올해 3차 계획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의미임
- 똑같은 법으로 보고서가 2개가 나오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음, 앞으로 그런 부분의 보강이 필요함

○ 박홍순 위원

- 예산보다 실적 집행 금액이 과다한 경우는 이월한 금액을 집행했다는 것인지?

○ 백운초 위원

- 나무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작성 시에는 시 예산만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봄

○ 박홍순 위원

- 따로 그런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원래 예산에 맞춰 집행액을 기재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음

○ 강영신 위원

-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왜 26년, 27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?

○ 백운초 위원

-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작년까지 시의회 동의 등 기초적인 행정절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제3자 공모, 실시설계 등의 절차까지 2년정도가 소요됨, 실제 예산투입은 28년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

○ 박서현 위원

- 바이오차 관련 지표는 개소수로 되어 있는데 헥타르로 지표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?

(군산시 기후환경과)

- 사업 초기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함, 3차 기후위기 대응계획에서는 세부과제에서 빠져있음

○ 박홍순 위원

- 농업 관련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농가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올리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함, 시범사업은 검증 등의 문제로 농민이 선택을 해야하는 부분으로,

친환경이나 저탄소에 대한 농민교육이 필요함

- 친환경 공동방제 같은 경우 군산에서 전국 최초로 전지역을 추진함, 농가 비용 절감이 되는 이런 사업은 관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음

[의사일정 제1항 심의·의결]

○ 2025년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(안)

- 심의·의결 결과: 원안가결 (찬성: 9명, 반대 : 0명)

[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(안) 심의·의결]

(군산시 기후환경과)

- 1항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고 2항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각각의 계획들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며 계획또한 변경이 가능함
- 매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에 한번 또는 더 자주 관련 실무자들 회의가 있음

○ 박서현 위원

-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먹거리 정책하고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함

(군산시 기후환경과)

- 군산시 같은 경우 농업이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음

○ 박서현 위원

- 그렇다면 생산보다는 소비중심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

○ 박홍순 위원

- 교육부에서는 그냥 밥값만 지원하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 시군에서 각각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후부와 교육부가 협업을 해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함

○ 강영신 위원

-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, 환경교육도시 추진, 탄소중립센터 지정의 사업은 추진까지 4~5년이면 너무 늦은감이 있음, 1년 정도 기간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건의드림

[의사일정 제1항 심의·의결]

○ 2025년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
보고서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(안)

- 심의·의결 결과: 원안가결 (찬성: 9명, 반대 : 0명)